

## ‘싸름’ 관련 자료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2~63쪽

제재명

금다래타령

지도서

324~325쪽

### ▶ 싸름

황해도 전통 민요의 하나로, ‘싸름 타령’이라고도 한다. ‘싸름’은 ‘쓰르라미’의 방언인데, 싸름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에 젖게 되어 처량하고 슬픈 감회를 읊는다는 내용이다. 음계의 구성이나 시김새로 보아 전형적인 서도 소리이며 수십가토리의 끝나는 음인 ‘레(I)’로 끝난다. 특히 “싸름 싸름 너도 나도 살살 (간장을) 다 녹여 낸다.”라는 합창 부분에 이 노래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출처** 임미선, “동양음악 11권 중 ‘황해도 민요 연구’”,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9, 69~93쪽.

중모리장단

서도(황해도) 민요 | 유지숙 창 | 정미영 채보

싸 름 - 쌔 름 - 느 티 나 무 밀 - - - - 에

싸 름 우 는 - - 소 리 가 컷 - 가 에 들 - - 리 - 네

싸 름 - 쌔 름 내 맘 도 - - 살 살

다 녹 여 - - 낸 - - - - 다

## ‘금다래타령’ 단소 악보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2~63쪽
제재명	금다래타령	지도서	324~325쪽

### ▶ ‘금다래타령’ 단소 악보



## 단음계의 종류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4~65쪽

제재명

장음계와 단음계

지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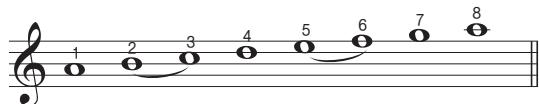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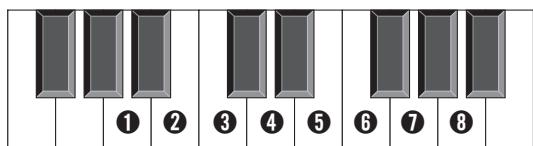
326~327쪽

### ▶ 단음계

장음계의 으뜸음에서 단3도 아래의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음계이다. 단음계의 종류에는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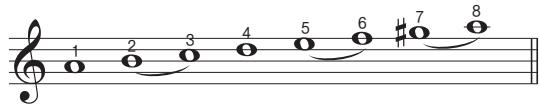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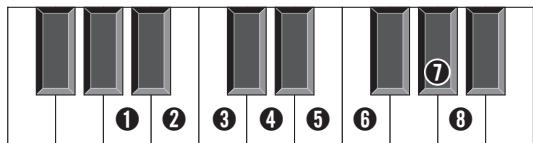
#### 1. 자연 단음계

2~3음과 5~6음이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으로 된 음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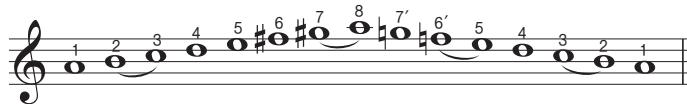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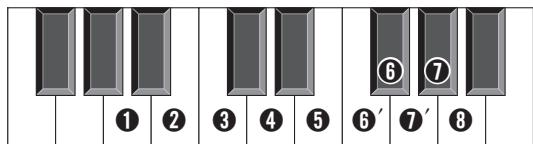
#### 2. 화성 단음계

자연 단음계에서 7음을 반음 올린 음계로, 2~3음과 5~6음, 7~8음이 반음인 음계이다.



#### 3. 가락 단음계

상행할 때 자연 단음계의 6음과 7음을 반음 올리고, 하행할 때 변화된 음을 다시 제자리로 하여 내려오는 음계이다.



## 장음계·단음계 악곡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4~65쪽
제재명	장음계와 단음계	지도서	326~327쪽

## 1. 단음계의 곡을 장음계로 바꾼 경우(가단조 → 다장조)

흰 구름

조금 느리게

정세문 작사 | 외국 곡

두 등 실 흰 구름 멀리 떠 나 네  
우 리 누 나 좋 아 하 던 저 구 름

## 2. 장음계의 곡을 단음계로 바꾼 경우(다장조 → 가단조)

리 자로 끝나는 말은

보통 빠르게

윤석중 작사 | 미국 동요

리 리 리 자로 끝나는 말은 -  
괴나리 보파리 땁싸리 소쿠리 유리향아리 리 -

##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8~69쪽
제재명	송어	지도서	330~331쪽

### 1. 하이든(Haydn, Franz Joseph / 1732~1809)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대장간 집안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하이든은 교향곡 104곡과 혼악 4중주곡 80여 곡을 작곡하여 교향곡의 아버지, 혼악 4중주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하이든이 작곡한 곡들은 매우 독창적이었다. 새로운 형식의 창조자였음은 물론 혁신적인 전조와 놀라움을 만들어내는 데 명수였으며, 그의 음악은 논리적이고 통일성이 있었다. 하이든은 모차르트, 베토벤과 함께 빈 고전파의 전성기를 이뤘다.

### 2. “놀랄 교향곡” 2악장

“놀랄 교향곡”이라는 표제가 붙은 것은 2악장에서 단순한 주제가 조용한 연주로 시작되고, 다시 더 조용하게 반복해서 연주한 다음 텁파니와 함께 강한 연주가 전개되어 듣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때문이다. 2악장은 변주곡 형식을 취하며, 다장조의 유명한 선율을 주제로 해서 변주곡 3곡이 이어진다.

출처 편집부, “클래식 명곡 해설”, 삼호뮤직, 2012, 69~72쪽.

### 3. 하차투리안(Khachaturian, Aram Illyich / 1903~1978)



현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성장할 때까지 정규 음악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연주회에서 재능을 인정받아 그네신 음악학교를 거쳐 모스크바 음악원에 진학하여 작곡을 배웠다. 그는 동양 전통 음악과 서유럽 전통 음악을 결합시키는 데 성공한 독보적인 음악가였다. 이러한 동서양 전통 음악의 결합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동양 음악의 풍부한 잠재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출처 편집부, “클래식 명곡 해설”, 삼호뮤직, 2012, 326쪽.

### 4. “가면무도회” 중 ‘왈츠’

하차투리안의 작품 중에서 통속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작곡 기법상으로도 서부 유럽의 무도 음악적 영향이 강하면서도 하차투리안의 아르메니아인적인 개성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1곡인 왈츠를 비롯하여 다섯 곡이 모두 3부 형식으로 씌여 있다. 이 다섯 곡은 “가면무도회”的 풍경을 묘사한 음악으로 가면의 허상과 가면에 가려 있는 진실을 암시하려는 듯 상반되는 분위기의 음악을 교대로 연주한다.

## 영등 할망 이야기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72~73쪽
제재명	서우젯소리	지도서	334~335쪽

## ▶ 영등 할망 전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인간도 아니고 저승 사람도 아닌 거인 영등이 수평선 저 너머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주 한림의 한수리 마을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거친 태풍을 만나 외눈박이 거인들이 사는 나라로 표류했어요. 마침 영등이 그곳에 있었는데, 착한 영등은 어부들이 외눈박이 거인들 손에 죽을 것 같아 어부들을 숨겨 준 후에 파도가 잔잔해지자 고향 마을로 돌려보냈어요.

이때 영등은 어부들에게 고향 포구에 도착할 때까지 '개남보살'을 계속 외우라고 단단히 당부했어요. 어부들은 영등의 당부를 생각하며 고향 앞바다까지 개남보살을 외우며 무사히 왔어요. 그런데 고향 마을이 보이자, 너무 기쁜 나머지 어부들은 개남보살 외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며 어부들이 탄 배를 다시 외눈박이 나라로 보내 버렸어요.

다행히도 그때까지 영등은 그곳에 있었어요. 어부들은 영등에게 다시 애원을 했어요. 마음 착한 영등은 큰 바위를 들어 올리고 그 속에 숨으라고 했어요. 어부들의 배가 되돌아온 것을 눈치 챘 외눈박이들이 이번에는 개까지 데리고 와서 어부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등의 조치로 외눈박이들은 이번에도 어부들을 찾지 못했어요.

몸집은 거인이지만 마음이 착한 영등은 어부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며 이번에는 개남보살을 끝까지 외우라 당부했어요.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가면 음력 2월 초하룻날에 자신이 방문할 테니 극진하게 환영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부들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개남보살을 외우며 무사히 귀향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외눈박이 거인들이 영등의 도움을 받아 어부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아 버렸어요. 외눈박이 거인들은 화가 나서 영등을 죽인 후에 세 토막을 내어 바다에 던져 버렸어요. 이때 죽은 영등의 머리는 제주 우도 해안에, 몸통은 칠머리당 아래에, 다리 부분은 한수리 앞바다에 떠올랐어요. 영등 덕분에 목숨을 구한 어부들은 자기들을 살려 준 은인인 영등의 시신들을 한데 모아 장사 지내고 당을 만들어 지극 정성으로 모셨어요.

이후 영등신은 해녀와 어부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수호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주 사람들은 바다의 재앙을 막아 준 영등의 은혜를 생각하며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영등굿을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주에서는 영등굿을 하는 동안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제사나 장례가 있으면 영등의 뜻으로 밥 한 그릇을 마련해야 탈이 없다고 믿어 영등신에게 한 그릇의 밥을 바쳐요.

한편 영등신이 제주에 머무를 때는 소라와 고동처럼 껍데기가 있는 해산물은 껍데기가 텅텅 빈다고 해요. 왜냐고요? 영등 할망이 와서 모두 까먹기 때문이랍니다. 영등에 대한 이름은 예전에는 영등 대왕 · 영등 하르방 · 영등 할망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으나 최근에는 영등 할망으로 통일해 부르고 있어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장용준, "장콩 선생님과 함께 묻고 답하는 세계 문화유산 이야기(한국 편)", 북멘토, 2011.)

##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74~75쪽
제재명	겨울을 표현한 음악	지도서	336~337쪽

### 1. 쇼팽(Chopin, Frédéric François / 1810~1849)



쇼팽은 폴란드 태생의 낭만주의 작곡가로, 자유롭고 시대를 앞서나가는 독자적인 양식의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는 후반 생을 파리에서 살며 39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에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릴 만큼 피아노 작품을 많이 남겼다. 대표작으로는 ‘피아노 협주곡 1번’, ‘녹턴’, ‘즉흥곡’, ‘발라드’, ‘화려한 대왈츠’, ‘뱃노래’ 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김원구, “음악의 역사”, 한국사전연구사, 1996.)

### 2. 연습곡(Etudes)Op. 25, 제11번 a단조 ‘겨울바람’

쇼팽이 1832~1836년 사이에 작곡한 연습곡 Op.25의 12개 작품은 1837년에 출판되었고, 이 중 ‘겨울바람’이라는 부제가 붙은 연습곡 제11번은 오른손의 반음계적 화성과 빠른 아르페지오 진행이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를 연상시키는 낭만주의 예술의 최고봉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출처 네이버 캐스트(박제성, “클래식 명곡 명연주”, 2013.)

### 3. 드뷔시(Debussy, Claude Achille / 1862~1918)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였다. 파리 음악원에 다녔고, 22세 때에 로마 대상을 타고 로마에 유학해 파리에 돌아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창작에 전념했다. 대표작으로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목신의 오후 전주곡’ 등 인상주의적인 피아노곡과 관현악곡을 많이 남겼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김원구, “음악의 역사”, 한국사전연구사, 1996.)

### 4. 어린이 차지(Children's Cor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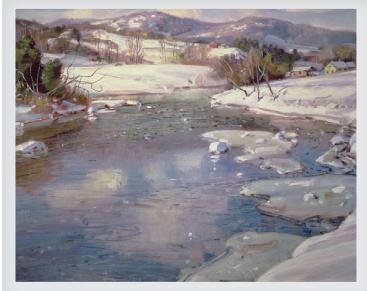
피아노를 보다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드뷔시는 1905년 10월 30일에 태어난 자신의 딸인 슈슈(Chou-Chou)를 위한 피아노곡을 작곡했다. 그리하여 ‘인형의 세레나데’를 1906년에 먼저 작곡한 뒤 그 반응을 지켜보았고, 사랑하는 딸에게 음악적인 상상력을 주기 위해 뒤이어 다섯 곡을 작곡하여 모음곡 형식인 ‘어린이 차지’를 완성했다. 1908년에 드유랑 출판사에서 출판된 이 곡의 초연은 그해 12월 18일 파리에서 자신의 딸인 슈슈에게 헌정되었다. 사랑스럽고 회화적이며 동화적인 이 작품은 연주 기술이 어렵지 않아 전문 연주자뿐 아니라 일반 애호가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춤추는 눈송이(The Snow is Dancing)’는 전체 여섯 곡 중 네 번째 곡으로, 오스티나토로 구성된 페달링을 통한 자욱한 음향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내리는 야외의 풍경을 묘사한다. 아이의 장난스러운 모습은 오른손 멜로디와 스타카토 연타를 통하여 가끔 등장한다.

출처 네이버 캐스트(박제성, “클래식 명곡 명연주”, 2013.)

## 명화 해설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74~75쪽
제재명	겨울을 표현한 음악	지도서	336~337쪽

## 1. 조지 가드너 시먼스의 '겨울 풍경'



미국의 풍경 화가인 조지 가드너 시먼스는 눈 쌓인 뉴잉글랜드 지방을 주로 담아낸 겨울 풍경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그림은 세밀하고 정교하기보다는 겨울바람처럼 강하고 거친 느낌의 표현이 특징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정교하지 않은 그의 그림은 오히려 겨울의 스산함과 날카로운 추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실성이 있다. 조지 가드너 시먼스의 '겨울 풍경'은 하얀 눈에 뒤덮여 있는 산속 마을과 깨끗하게 흐르는 겨울의 강물, 끗끗하게 초록빛을 띠우는 사철나무의 조합이 평온하고도 고요한 겨울의 어느 날을 표현하고 있다. 레비틴 박사 연구팀은 이 같은 가설에 대해 아편 유사제 신호를 차단하는 날트렉손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 2. 프란시스코 고야의 '눈보라'(1786)



이 작품은 고야의 사계절 4부작 중 겨울 작품이다. 여유롭고 따뜻한 느낌마저 드는 겨울 풍경과 달리 고야의 '눈보라'에서는 현실 속의 겨울이 존재한다. 날아가지 않도록 담요를 꽉 움켜진 손에서 거센 눈보라가 느껴지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서운 겨울 속에 겨울 동안 먹을 식량인 돼지를 얹고 칼바람을 뚫고 걸어가고 있다. 하얀 입김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당나귀는 몸보다 큰 돼지를 짊어지고 묵묵히 그들을 따라가고, 사냥개는 거센 겨울바람에 저항하듯 벼티고 있다. 이 그림은 무겁게 가라앉은 코발트 빛 하늘과 뼈속까지 스며들 것 같은 매서운 겨울바람과 힘든 겨울에도 묵묵히 할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매우 생생하게 표현했다.

## 3. 클로드 모네, '아르장퇴유의 설경'(1875)



눈 내린 길 위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걷다가 잠시 멈춰 선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눈이 가득 내렸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모네는 1871년 말 파리에서 멀지 않은 센강 변의 작은 마을인 아르장퇴유에 정착하고 이곳 풍경들을 자신의 많은 작품 속에 담고 있다. 특히 드넓은 경작지와 포도밭 사이의 길들, 센강가와 들판의 산책로, 철교 등이 매력적인 작품의 소재가 되었고 아르장퇴유 연작들을 탄생시켰다.

출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명화큐레이션' 명화 속 겨울의 순간들, 게티이미지코리아, 2016.